



존경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7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도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 그 다양성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2002 경북 세계농업 한마당』 행사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잘 마무리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 여유롭지 못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타시·도의 비교견학을 다녀오신 예산결산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수와 견학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의 대 테러전쟁 분위기와 북한의 핵개발 문제, 미국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도 불투명한 수출전망과 소비위축 현상, 가계부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을 맞아 신당창당과 국회의원 당적 이적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으로서 실익이 없는 소모성 정치논쟁을 떠나 일관성 있는 도정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난 여름 월드컵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신감을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짧은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의 의견이 곧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 준비와 추경예산안 심사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간 회기운영상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300만 도민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22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주요의정 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제171회 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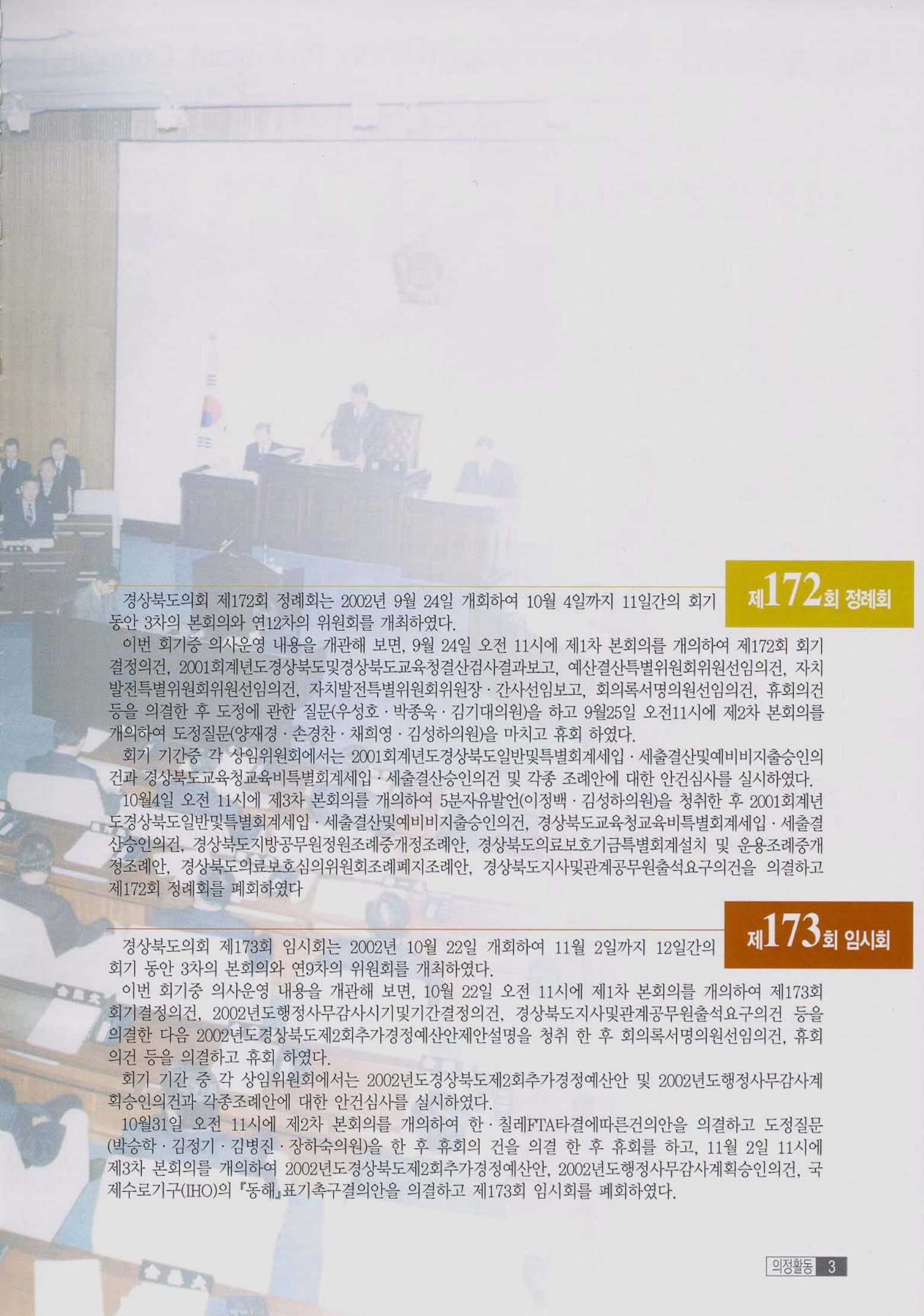
경상북도의회 제171회 임시회는 2002년 8월 27일 개최하여 9월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1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8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강영서의원)을 청취한 후 제171회 회기결정의건, 2002년도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 하였다.

9월 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응규·김성하·김기대·이현준의원)을 청취한 후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2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15호태풍“루사”피해의효과적인복구를위한특별재해지역선포추구에관한건의안을 의결하고 제17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172회 정례회

경상북도의회 제172회 정례회는 2002년 9월 24일 개최하여 10월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12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9월 2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회기 결정의건, 2001회계년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결산검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도정에 관한 질문(우성호·박종욱·김기대의원)을 하고 9월25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양재경·손경찬·채희영·김성하의원)을 마치고 휴회 하였다.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하였다.

10월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이정백·김성하의원)을 청취한 후 2001회계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상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제172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제173회 임시회

경상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는 2002년 10월 22일 개최하여 11월 2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9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3회 회기결정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한 다음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 하였다.

회기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각종조례안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하였다.

10월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한·칠레FTA타결에따른건의안을 의결하고 도정질문(박승학·김정기·김병진·장하숙의원)을 한 후 휴회의 건을 의결 한 후 휴회를 하고, 11월 2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 제173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172회정례회 회기결정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 (간사:방유봉의원)
- 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채택

제172회 정례회

- 제173회 임시회 회기결정
- 2001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원안가결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 채택

기획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2년도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경상북도 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 경상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경상북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
-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 200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02년도 농수산물직판장 운영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상황보고 청취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2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경상북도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위원안가결
-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에 관한 건의안 채택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1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위원장:장대진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간사:우성호의원)
- 200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수정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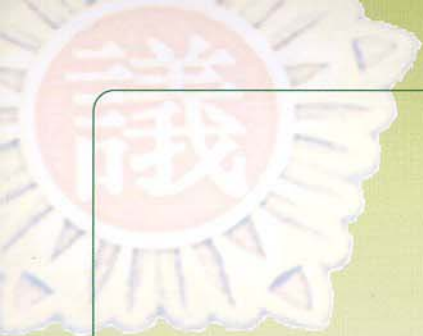
제172회 정례회

- 200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 200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 200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우 성 호의원 (행정사회위, 영주)

대구, 경북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대구, 경북의 통합 찬성 여부와 향후 통합추진 방향은?

- ▶ 대구, 경북의 통합문제는 양 시, 도민과 시, 도의회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 도민의 의견조사와 시, 도 의회의 동의, 국회의 법률 제정 등 소정의 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 방침과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 언론매체의 협력을 얻고 통합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각 요로 요로에 정부 차원의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어 내는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음.(행정부지사)

낙동강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도의 역할과 특별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 군 조직 및 인력보강 대책은?

- ▶ 대구, 경북은 지역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낙동강특별법 시행과 관련 시, 군 인력보강은 시, 군에 수계관리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시에는 4명, 군에는 3명 등 인력보강을 환경부에 기히 요청하였으며 조직 및 인력보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보사환경산림국장)

제15호 태풍 "루사" 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큰 김천시와 성주군의 주민들은 수해원인이 무리한 임도개설과 부실한 사후관리, 저수지의 관리 잘못 등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수해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도내 국고보조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분 5,000억원의 재원조달 대책과 공공시설 복구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 ▶ 임도시설은 지역별 최대 시우량을 감안하여 구조물 확대시공 및 특수축화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견고한 임도를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임도시설로 인해서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저수지 관리에 있어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 방수량 수문(게이트)의 추가 설치, 저수율 사전조절 등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수해 항구복구에 따른 재원 조달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증액교부금등 중앙에 지원을 적극 건의 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에 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공공시설 복구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내업체로 제한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는 분할발주로 시행을 하고 분할발주가 어려운 교량 등 구조물 공사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시행하는 등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건설도시국장)

도정질문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이 사업추진 조직의 특정 지역인사, 후보지 평가단 구성, 후보지 평가기준, 후보지 평가절차 등 후보지 선정절차 및 내용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는? 불필요한 지역마찰 및 반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 건을 전반적으로 재심사 하고 당초 추진 절차에 따라 심포지엄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방자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시에 조성에 대한 구상을 보고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해당 단지 조성에 필요한 50만평 이상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은 결과 안동, 영주, 상주,봉화 등 4개 시군이 유치 신청을 하여 경산대학 한의과 대학에 후보지 선정에 평가 의뢰한 결과 상주가 대상지로 결정 되었음. 상주가 대상지로 결정된 것은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토지에서 재배하는 것과 후보지 200여 만평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부지확보의 용이점, 중앙부처와 협의 결과 사업비 확보의 용이성, 자연휴양림 시설 등 구축된 인프라 활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 조선시대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과 화령,약령시 등 한방 관련 역사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상주지역은 한방자원화 산업단지로 하고 영주를 포함한 안동,봉화 지역은 재배와 더불어 인삼복합단지 조성으로 연계된 유통중심지로, 영천 지역은 대구 약령시와의 관계를 통한 유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등 도내 한방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인사와 협의하여 한약관련 진흥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도지사)

교대 졸업생의 경북지역 신규임용 유입책 등 교사 수급의 애로를 타개할 방안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 채용에 앞서 기간제 교사를 사실상 인턴과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교사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강화 등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 ▶ 교대 졸업생의 경북지역 신규임용 유입을 위하여 교원 연립사택 신.증축, 농어촌 소규모학교 근무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농어촌 학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교원 사정이 원활해 진다면 시.도 교류를 최대한 확대 실시 하도록 하겠음.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임용시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하여 향후 사립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해서 증설요인이 있는 학교에는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사로 임용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를 악용하거나 교사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교원 인사관리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인사담당자의 직무연수와 공문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부교육감)



박 중 옥의원 (교육환경위, 청송)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이다.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관해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임명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점이 지적되는 문제로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 시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장치 강화, 행정사무기능의 부단체장 전결 확대, 인사, 예산, 계약부조리에 대한 규제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 시·도지사 모임에서도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천 폐지론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들도 얼마전에 모임을 갖고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 ▶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선행정의 정치적 중립성·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당공천 제도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도지사)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이 발효되어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거두어 지원대상인 수변지역을 낙동강 주변 500m이내, 댐 상류 20Km이내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안동, 임하 호수내 수질개선 환경보전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폐수 배출량이 많은 영양읍,청송군이 제외되었습니다. 수질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변지역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의 대책은 어떠한지?

- ▶ 안동댐 및 임하댐 내의 수질개선사업은 낙동강특별법과 관계없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영양군과 청송군의 수질개선 사업은 수변구역 내의 지원과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수변구역 변경,조정시에 영양,청송의 수변구역 제외 지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과가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행정부지사)

국정감사권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 8월30일에 전국 16개 광역시·도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강행 시에는 정문에서부터 봉쇄하였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시·도의회 고유권한으로 고유권한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게 공식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국정감사자료 반대 작성거부까지 하고 전국 시·도지사에

도
정
질
문

제도 국정감사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감사원과 소관부처, 그 다음에 광역의회 등 중복 감사와 감사까지 준비하는 데까지 약 150일이 걸린답니다. 또한 금년에 국회의원들이 27명이 자료를 380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익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민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국가, 지방사무의 구분 체계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지양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8월에 이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국정감사 위헌 헌법소원, 국정감사의 거부 결의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또는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한 뒤에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거나 중복·과도한 자료요구를 지양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박의원님과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도지사)

경도대학 문제는 6대에서도 몇번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의 입학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경도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구 인근 적어도 칠곡이라든지 대구인근에 캠퍼스를 하나 증설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원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사께서도 공감을 했고 지금 경도대학 학장께서도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마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갈 겁니다.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 ▶ 경도대학은 우리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97년 3월 15일 독립대학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진학자가 감소하는 추세로서 금년의 경우 대학입학정원대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약 6만5,000여 명이 부족하고 우리 경북지역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도내 대학정원의 4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학과별 또는 교수별로 입시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달된 학과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현 정원 내에서 일부 계열별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도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제2의 캠퍼스 설치의 지역 여론과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도지사)



김 기 대의원 (건설소방위,성주)

우리 안동국학진흥원에 2000년도 고서구입비 2억원이 내려갔는데 그 액수를 가지고 무슨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 고서는 얼마나 구입했으며, 신간서적은 얼마나 구입했는지, 혹시 그 돈을 가지고 퇴계탄신500주년기념 행사하는데 쓴 것은 없는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요서적을 납품한 사람은 주로 서울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광역시·도 건설국장이 중앙회의에 갔을 때 태풍15호 루사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니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또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라, 그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라,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 이름은 지역경제, 지역경제, 아름다운 수식어, 용어 쓰면서 실제로 행하는 걸 보면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런 점도 정말 지역업체는 그런 정도 납품하는 업자가 없는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서면답변)

도산서원 앞에 보면 국학진흥원이 있고 국학진흥원 앞에 보면 산림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3개 시·군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특히 북부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호감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삼선이라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야생조수 사육장을 거기에다 만들어라 해 가지고 야생조수사육장을 도산서원 앞에다가 지정을 해서 작년부턴 계속 돈이 내려와서 금년 추경에 15억하고 설계등... 한 20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도 안동하면

도산서원, 도산 하면 퇴계선생입니다. 퇴계선생이, 사립대학을 그 후예들이 설립해 가지고는 그 도산에 입문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그 당시에 하도 사람들은 걸어가지도 못해 가지고는 거기에 입문을 못하고 부자집 후에 그런 분이나 도산 퇴계선생의 문인이 되고 지금 퇴계선생의 문인이 된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조상도 퇴계선생의 문인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그 앞에다가 조수사육장을 지어라, 아무도 “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양, 봉화, 청송 산짐승이 많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구 인근, 성주, 군위, 고령, 청도 이런 데 해도 될텐데 균형 개발하면서 왜 거기다가 또 사육장을 만들어야 했는지, 그 배설물은 안동댐으로 내려갑니다. 안동댐은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 균형개발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육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떨겠는지?(서면답변)

우리 이의근 지사께서는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 상을 제일 많이 타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해만 떼다하고 날짜만 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국학진흥원은 투자하다가 투자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는 중앙정부에 인수해 가거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비추어 집니다. 그 귀중한 도비 130억원을 투자해 놓고는 이제 더 투자를 못하겠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추진할때는 그렇게 자랑하고는 더 투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낸

분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였지 싶고 조수사육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는 이의근 지사님 손 딱 잡고 이제 4선은 안 된답니다. 3선이 마지막 이랍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 벌이지 말고 있는 사업을 차근차근 마무리짓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또 대학교수한테 용역 주고 또 주위에 어떤 좋은 아이템 없나 연구해 보라 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기상천외한 것을 발굴해 가지고는 “이것 한번 해봐!”, “예, 지사님 정말 그것 좋습니다. 생각 잘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습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있는 것만 해도 마무리시키려 하면 복잡하니 더 이상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충정 어린 부탁입니다.

지금 태풍 15호 루사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어느 공무원 하나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재의 “인”자 하나 내는 사람 없고 주민이나 의원님이 인재에 가까운 것도 군데 군데 우리가 발견을 했다 이러면 처음에는 공무원도 그래 맞습니다. 저기는 인재가 10% 내지 20%는 되지 싶습니다. 이래야만 옳은 공무원일건데 천재 아닙니까? 이것 뭐 우주섭리는 거짓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만만한 게 하늘이고 만만한 게 자연이고 만만한 게 우주이거든요. 그러니 말 없는 우주섭리라는 참을 따름이지 공무원에게 따끈한 이번에 벌을 주었습니다. 내가 비를 내려 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 주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엄한 벌을 내렸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은 재해가 일어났든지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전쟁시에 비상시에는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고 값은 고하간에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하는 법령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행자부 장관도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 시켜라 하도급을 꼭 주어야 할 데가 있더라도 그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니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늦게서야 이제 철이 들었는지, 그런 걸 신문을 봤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은 지금까지 그 많은 공사발주를 “전국입찰”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도에 많이도 가지고 갔는데 이번 태풍 15호 루사의 선물을 이지역 경북도 업체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령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사계약에 따른 사항들은 회계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다. 저것은 또 입찰을 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기대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들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 지역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다른 공사도 수의계약 할 때에는 그 지역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회계처리에 추후의 오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양 재 경 의원 (농수산위,청도)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71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객이 1명 내지 4~5명, 때로는 승객이 없는 버스를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에너지 정책, 소음 및 대기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스업계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연도별 액수와 총액은 얼마이고, 회사는 몇개 회사이며, 버스대수는 몇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정지원을 줄여서 버스회사 운행횟수의 제한과 같은 경영합리화와 재정의 절감을 할 의향은 없어신지요?

- ▶ 버스업계의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총74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에서 시외버스는 16개사 985대에 39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28개사 1,403대에 35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도 시외버스에 국비 27억원과 도비 26억원을 합해서 53억원을, 또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국비 29억원과 시·군비 28억원을 합해 5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추경시 확보된 7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할 시외버스 지원금 53억원과 또 지난해 시내 농어촌버스에 지원키로 한 국비 18억원을 건설교통부에서 확보치 못해 우선 시·군비로 대체 지원한 후에 금년 6월 국비가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경영합리화와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버스업체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와 법령 위반 업체 등 퇴출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에 따라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인수·합병토록 지도해 나가고, 각 노선별로 운행의 필요성을 면밀

히 분석하여 경쟁력이 없는 노선은 폐쇄를 하고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은 감축하여 재정과 유류 소비량 절감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경제통상실장)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 경북세계농업한마당 국제NGO대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행사 추진을 위해 법인체 설립 즉 사단법인 경북세계농업포럼이사장 최양부씨를 통하여 행사를 앞으로도 문화엑스포와 같이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국제NGO대회를 계기로 관변단체 및 농어민 단체도 예산을 대폭 삭감 혹은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요?

- ▶ 농업한마당행사와 같은 이러한 국제행사를 매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게 되는 행사 중에서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간의 회의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부정기적이라도 이번 회의의 성과와 반응을 종합 판단해서 부분적인 행사를 할지는 이번 행사 결과를 가지고 상의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예산삭감과 관련하여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중복된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면서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도지사)

농촌제방 기초붕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막대한 재원의 소요, 하상의 중심이 손바닥처럼 물의 중심부로 흘러야 될텐데 손등처럼 양방천 밀자락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데 유비무환으로서 농한기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도 일원에 하상 높은 곳을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우리 도에서는 하상정비를 위하여 2001년부터 전체 50지구 225Km에 2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약 60억원정도를 지원해서 현안사업과 하천유지 보수사업 시행시에 하도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홍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농수산국장)

병들고 시들어 가는 폐교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교는 몇 개교이며, 지금까지 매각 처분한 학교, 미처분한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고 폐교된 학교를 임대했을 경우 임대효과와 임대액은 얼마인지? 미관상 관리 상태가 보기에 흉하고 미활용 폐교의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떠한지, 처분한 폐교와 임대된 폐교의 수입금 현황과 활용 내역은 어떤지?

교육감께서는 가칭 학교부지및건물매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1982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폐지된 학교가 514개 학교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152개 학교가 처분되었고 323개교가 자체 활용 및 대부를 통하여 학생야영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장, 마을회관, 농민교육장,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39개교가 미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폐지학교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149개교에 201억원이며, 대부를 통한 연간 임대료는 260개교에 8억 6,000여 만원으로서 수익금 전액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시설사업 등 재산조성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미활용 폐지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매각 및 대부 등을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산간 오지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추진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특별법을 지난 '99년도에 이미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법령에 의해서 매년 폐교재산의 관리를 위한 폐교재산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손 경 찬의원 (산업관광위,영덕)

도지사께서 도청이전에 대하여 공약하였는데 대구,경북을 통합할 것인지 도청을 이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사랑과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공약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노인이 살기좋은 경북건설을 하겠다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공약에 비해 이행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노인관련 시설들을 조기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기건립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민선 2기 중 공약사항 실천에 대하여 도지사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자평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민생안정 5대 첨단사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개편 등 8대 실천과제, 57개 시책사업의 상기 공약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 ▶ '95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청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과정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으며, 이제는 정보화시대등 여건변화로 자치단체의 통합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대구시민과 도민들의 합의와 정치적, 행정적 역량이 함께 모아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의 길을 찾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 문제는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21세기 신경북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면서도 임기중에 다 한다고는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약사항 실천 평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연구단체,중앙정부에서 민선7년에 대해 평가 결과 경북도정이 발전적인 도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협력적으로 일해왔고, 미래 지향적인 화합도정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도민들과 의회에서의 성원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도지사)

동해 중부선 및 국도 7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 부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사업계획과 그동안 추진 계획, 향후 계획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중안고속도로와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영덕군에서는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 완공과 34호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범군민국도확장추진협의회 구성, 군민서명운동 전개, 중앙 정치권에의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낙후된 동해안지역 개발을 위한 도지사의 구상과 견해는?

- ▶ 그동안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의 동해안 개발구상은 포항신항개발, 동해중부선 철도, 울진공항,포항공항,울릉공항, 해양연구단지, 동해안과 울릉을 천혜의 관광자원화, 파도,바람을 이용한 공해 없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 등 이러한 구상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덕과 서산간의 고속화 도로계획, 영덕에

도정질문

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4차선 확장계획 등이 현재 정부의 투자우선 순위에 밀려 있어 그동안 중앙정부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동해안 개발에 대한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의 대화에서도 동해안 개발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동해안 개발에 대한 염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염원 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도지사)

인사와 관련하여 개방형 임용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공포되었음에도 우리도에서는 시행에 소극적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 조직을 치밀히 분석하면 개방형 임용대상도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회사무처에도 개방형임용제의 도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 도입을 한다면 선정대상은 어느 직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 우리 도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제로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방형 대상직위에 결원이 발생시 외부 공모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으로 도정의 전문성과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조직의 개방형직위 도입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의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오래된 일입니다. 이처럼 비대해진 사교육비의 구조적이 모순은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허물어져 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 ▶ 사교육비가 비대해진 것은 학부모들의 의식과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차에 따르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원하며, 특히·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과외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도록 하고, 교단 선진화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부교육감)



채 희 영 의원 (건설소방위,문경)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와 결함이 잇따라 핵정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중수로에서는 중수가 누출되어 근무자들이 피폭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고, 울진 4호기에서도 전기발생기 세관파탄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을 포함한 물 45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에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음에도 도단위의 감시기구는 물론 해당지역인 울진이나 월성에서도 필요한 조례마저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인근에 둔 부산의 기장군과 전남 영광군이 이미 기구를 만들어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단위 감시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어신지, 또한 해당시·군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라는 권고는 할 수 없는지?

▶ 원자력 관련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인 경주시와 울진군에서는 민간단체단 조사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감시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감시기구 설치에 현재 추진중인 시·군의 환경감시기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 단위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

백혈병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신약 글리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글리벡 독점 생산사인 노바티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시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글리벡 강제 실시권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지사님께서도 글리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과 글리벡을 가속기와 급성기 때만이 아닌 백혈병 발견 당시부터 투약할수 있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을 건의할 용의와 우리 도의 백혈병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우리 도에는 약200명의 백혈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환자에게도 백혈병 당시부터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한 달에 수백만원 이상의 많은 약값이 들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도는 생명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가 약속한 난치성 질환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보건환경산업국장)

한·중마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2003년이후 긴급수입제한 즉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부속서에 합의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약이나 국내산업피해구제법상의 우리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

는 연장포기 자체를 2년간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데 이로 인하여 마늘 농가의 분노와 강력한 저항이 있었으며 지사님께서서는 경상북도의 마늘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과 그들의 생존권 보존대책은?

- ▶ 정부에서는 국내 마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 9,297억원을 투자하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시책에 추가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중 정부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설치, 지력증진, 중구생산장려금지원 등 우리 마늘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내년부터 3년간 도비, 시, 군비 등 약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 군위, 의성 등 마늘재배 주산단지 위주로 집중지원체제를 계속 도입하는 등 자체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도지사)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수출 지향적인 우리 경제의 필수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중국에는 통상주재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국 파견 공무원은 통상주재관 직위를 격상하여 파견함으로써 해외통상 시책 추진 및 우리 도의 중소기업 진출과 수출 활동을 강력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 ▶ 중국이 거대한 시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중국지역에 시장개척활동 전개, 교류 및 우호방문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교류를 보다 더 활성화 하기 위하여 경제, 행정분야는 물론이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지역의 통상주재관 파견은 중국 진출이 우리 생존의 관건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조속히 중국지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경제통상실장)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국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즉 WTO 협정 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폐기되어 놓여민 단체는 물론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한국 농업인과 농산물을 위해서라기 보다 진정한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에 직접 건의안이나 청원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 ▶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채희영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농산물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에서 폐기된 실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를 통하여 동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급식품에 대하여는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부교육감)



김 성 하의원 (교육환경위,경산)

일선 시·군에 현재 추진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물론 향후 계획 중인 모든 소각장을 다이옥신 배출기준 등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시간당 0.2톤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및 운영비의 도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 우리 도는 이미 2000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소각시설을 다이옥신 측정의무가 있는 시간당 0.2톤 이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개소에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시·군·읍·면 단위 소규모 소각시설은 지역적으로 설치가 불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형시설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오염방지 시설이 고장 방치로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소각시설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설의 개체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다이옥신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보건환경산림국장)

이번 태풍피해로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의무액은 얼마

이며, 적립의무액을 적립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재해구호기금의 재원과 연도별 적립현황, 그리고 이번 재해에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향후 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적립하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평소 재해위험지구를 정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해 온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기존 재해위험지구 중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번 재해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서면답변)

2020년 대구광역시 개발계획은 본의원이 보기에 기본 골격만 짜여져 있을 뿐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 광역권 개발계획은 도시의 집중화를 막고 오히려 인근 지역에 분산 배치해서 상호 보완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중앙 정부와 또 인근 시·군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도지사)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님께서 대구·경북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분명한 공약을 제시 하셨다고 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지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대구·경북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도청이전의 계속 추진입니까?

그리고 대구·경북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대구와 경산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성실

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아직도 도청을 이전해야겠다는 제 공약에는 변함이 없으며, 제가 통합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도청을 옮기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옮기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문제의 결론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의회와도 깊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의 대구와의 통합, 이것은 경산시가 대구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개념은 통합 개념이지만 경산시와 대구, 이것은 편입이나 흡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나 광역도시인 인근 시·군이 통합되는 뜻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도지사)

지역명문고 육성에 있어서 경산시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대구의 8학군과 경쟁할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 육성이 경산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따라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경산시야말로 명문 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경산에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육성해서 정말 고등학교를 대구로 보내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산고등학교를 시설이나 환경면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사립고등학교도 유치

해서 정말 경산이 학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경산이 우리 경상북도의 중심지역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도지사)

청소년 관련 단체 교사들은 방과후 혹은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야영도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견학도 하고 하는데 이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조사해 보니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 선생님들의 출장비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출장비를 지급 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소급하여 지금이라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 교원들의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출장목적, 기간, 행선지에 따라 학교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근무지내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비의 전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비 규정에 합당한 그런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학교장은 지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교육국장)



박 승 학의원 (교육환경위,청송)

우리 도의 북부권과 남부권을 비교해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내 21인 이상 사업체 수 등 격차가 심한데, 도지사께서는 지역간의 불균형과 도·농간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시켜 웅도 경복을 이끌어 가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수립된 각종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북부지역의 낙후가 하루 빨리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도지사)

우리 주변의 실상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제대한 20대 초.중반의 농촌지역 청년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므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기여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일시적 행사성 사업일지라도 일시적 고용효과 등을 예상하고 적시 토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고용정책, 실업률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우리 도의 실업률은 1.5%이며,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의 전문인력 운영, 사회복지 도우미운영,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통역안내요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 낙후지역의 고용대책과 관련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 경작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농한기에 발생하는 실업에 대하여는 산불감시, 폐비닐수거 등 농한기 일손깎기사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업농 보다는 영세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생계가 어려운 농어촌 등 낙후 지역의 일자리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책사업과 중점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과분석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효과와 아울러 고용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고용계획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경제통상실장)

현직 공무원이 민선자치단체장의 무용론과 의회는 행정력을 방해하는 역기능만 한다고 하는데,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역 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로 많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 우수한 인재양성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도지사)

민선단체장 무용론과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극소수의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도 교육청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조례·예산 이런 것들이 이중 심의를 받게 되므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교육감)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사업 시행결과 증.개축을 반납한 학교의 미집행 예산을 재조정 한 시점과 재배정을 확정한 포항여고 등 7개교에 대해서 재 공사를 시작한 날짜, 재 공사를 시작할 당시 기 배정된 교실 증축 공사는 어떠한 상태였으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재 공사를 시작한 7개 학교의 공사가 현재까지 완료되었는지, 또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농촌지역 소외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사업 시행결과 미집행 예산을 재조정 한 날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12월 27일 추가 교부된 3억 6,600만 원을 받아서 2001년 12월 28일 재조정하였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재 공사는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공사에 추가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재 배정할 당시 기 배정된 교실 증축공사는 공사 중에 있었으며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한 학교는 지퍼형, 지퍼형 교실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물이 떨어지는 형을 지퍼형이라 하는데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포항 중앙여고 한

개교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집행한 포항여고 외 5개교는 공사 부족분을 추가 지원한 경우입니다.

재조정된 7개 학교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중 학생수용시설은 2002년 8월말 현재 모두 완공하였으며 경안고등학교의 경우 추가로 배정된 특별교실 1실은 제7차 교육과정 시설 1실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한 관계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제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감)



김 정 기의원 (농수산위,김천)

임도개설사업 현장이 지난번 수해 때 산사태의 대부분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한 환경파괴다, 재해의 원인이다 라는 여론이 있는데 임도개설 사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만약 임도개설을 계속 하신다면 획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 임도시설은 처음 개설 할 당시 부족한 사업비로 물량위주의 임도를 시설한 결과,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시공이 되지 못하여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99년부터 과거 물량위주에서 탈피해서 전국 최초로 사방공법에 의한 친환경적 임도를 시공하고 있으며, '98년 이전에 시공된 임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태풍 "루사" 때는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성이 입증되어서 전국적으로 사방댐 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당초 보다 많은 40개소를 확대 시공할 계획입니다.(보건환경산림국장)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시·도별로 동일한데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행정을 주문하는 뜻에서 10년 후에는 누가 보아도 "경북의 산은 다른 도의 산과 다르다" 라는 인식이 들도록 치산대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 의원님께서 산림행정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에 동감하며, 우리도에서는 이미 '98년도에 산림관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정책을

조림에서 육림으로 전환하여 경제수종의 수종갱신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 육림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 및 산불예방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산림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선진국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보건환경산림국장)

일선 시·군에서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하천부지에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원화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하천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재산인 용폐된 하천부지를 도지사 승인 없이 시장·군수·마음대로 매각 처분해도 사무관 한 사람 경징계한 것으로 그 끝을 맞은 것이 전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월권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시·군이 하천법 따위는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재난을 초래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기관을 적발·지적하여 의법 조치한 사례가 있었는지, 현재 하천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하천관리를 좀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하천 구역 내 공원 및 체육시설 등의 공작물 설치하는 하천관리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가 점용허가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천 공작물의 일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기이 설치된 공원 및 체육시설은 정비 또는 개수토록 하고 홍수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관리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점.사용 허가시는 시장.군수에게 유수 지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수해 위험이 있는 지역은 공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등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하천 구역내 불법 시설물의 조치 실적은 30개소를 철거토록 해서 지난 6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천 구역 내 불법 사항을 점검해서 하천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낸 김천의 감천에는 짧은 구간에 많은 교각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설치된 고속철도의 교각과 1995년도 시공한 김천대교의 교각 설치로 지난 수해 때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김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이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교량을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도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의견 제시나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하천 감천과 직지사천 내에 고속전철 교각, 김천대교 교각 등 40개소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김천지역 주민들로부터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에 따라서 김천시와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수자원 전문용역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지시험을 한 결과 감천과 직지사천의 경우 9내지 50cm정도로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해서 수위 상승된 지점에 제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번 김천시가 침수원인은 고속철도 교각으로 인

한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도 1월 20일날 도로공사에서 부산청과 공작물 설치 협의를 마쳤고 5월 4일날 도로공사에서 김천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 조건 사항으로 연장간 30m로 들어왔는 것을 45m로 확대해 달라는 조건을 건바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대책으로 직지사천과 감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등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건설도시국장)

이번 수해로 제방붕괴에 따른 외부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서 농사에 해로운 토양의 유입으로 많은 양의 토양개량제와 객토, 유기물 퇴비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금년은 수해도 수해지만 모든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내 모든 농촌과 농민이 흉년의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 복구를 위하여, 수재민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지만 이제 침수 지역 농민을 위하여 침수지역 벼를 보상 차원에서 전량 구매하여 주시고, 침수지역 농지의 토양개량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사의 답변을 구합니다.

- ▶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수해지역 벼 구매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지역의 약정된 물량은 전량 구매하도록 하겠으며, 비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전량 구매가 되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WTO에 규정된 보조금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침수 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제와 유기물 퇴비사용에 대하여는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도 토양개량제를 우선 공급토록 하겠으며, 현재 농협을 통해 저가에 공급되는 유기물 퇴비 또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도지사)



김 병 진의원 (산업관광위,문경)

금번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면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구복구를 병행하고 있는데 재해복구 전체를 항구복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규정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피해지역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개량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재해복구는 반드시 항구복구가 되어야하나 여의치 못하여 굳이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각종 법령이 정한 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정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만약 재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원상 복구 지역은 몇%이고 항구복구 지역은 몇%이며 도 전체가 항구복구 지역의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묻겠습니다.

현재 재해 유형은 국지적 호우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재해가 점점 빈번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 전지역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만약 재해를 입는다면 항구 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도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현황은 국가하천 5개소를 포함해서 총370개 하천에 86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하지 못한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 내습시 발생된 공공시설 복구계획은 도로, 교량 및 하천 등 7,515개소로 1조 215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개량복구지원은 54개소에 2,276억원으로 22%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량복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항구복구를 위한 기본은 수해피해지도 작성이 필수적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수해피해지도 작성을 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 및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체지형정보를 이용한 홍수피해 분석을 시행하여 좀더 근본적인 수해 피해 예방을 강구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수해피해지도 작성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해 우심 지역 피해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 기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국립방재연구소에서 현재 수해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타시·도는 아직까지 작성된 것이 없으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해지도 작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계획수립에 피해지도 작성비용이 반영되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취득, 항공사진촬영 및 분석 그리고 이를 운용하고 해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의 초기단계인 기본계획을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좀 더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교량, 도로, 하천준설 등의 설계시 설계심의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설계심의를 서면 심의와 회의심으로 다루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에 재해관련 설계심의를 하여야합니다. 심의는 모든 공공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해 및 안정성관련, 현장 회의심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교량 건설시 교각의 형태변경이나 교각으로 인한 담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홍수시 교각에 나무, 잡초, 부유물 등이 걸려 물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내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 ▶ 설계심의방법 개선책에 대하여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과 주요구조물 및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 회의심의 위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도 실시를 해서 부실설계방지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각형태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된 교량의 교각은 통수단면이 부족하거나 교각간의 설치 간격이 짧아서 우수 소통에 다소 지장이 없지 않았으나 현재는 교량 설계시 교각의 단면 지역은 하천의 통수 단면적에서 공제하여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각으로 인한 통수단면 지역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 등 부유물로 인한 피해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교각의 설치에 원활한 우수소통을 위해서 단면이 큰 중력식을 지양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형 및 구주식으로 시공을 함으로서 교각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적인 피해구간에 대해서는 박스형 구조물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또 교량형식의 구조물로 가설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장 하 숙의원 (기획위,비례)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140만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여성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여성들의 능력발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정에도 여성 간부 공무원을 확대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선 자치시대 이후에 여성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여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조성,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건전한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종 취미교육 및 교양교육의 실시, 실업 여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취업알선, 고충상담 등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크게 공헌한 도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확대임용과 관련해서는 민선 출범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여성공무원 30% 도 전임 할당제를 실시해서 현재 32명의 여성공무원들이 도에 전입을 했으며, 여성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위해 민방위과장과 해외 통상주재관을 여성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크게 환영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직원들이 간부공무원에 많이 승진,발탁될 수 있도록 핵심부서 배치를 확대하고 능력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도지사)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경북이 조국근대화를 이룩했듯이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우리가 앞장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경북의 정보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또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운동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의 정보화 정책 추진은 디지털경북 건설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98년도에 수립한 경상북도의 장기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정보화추진기본계획으로써 2009년까지 총2,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북새천년만들기 7대 비전과 그해 12월 디지털경북 선언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북의 실천운동인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하게 앞서가는 전자 지방정부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은 2001년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식정보화 국가전략 국제포럼에서 우리 도가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제안 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써 대내·외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세계적인 정보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대대적인 붐을 조성한 결과 경상북도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0년말 31.4%에서 2001년 말에는 48.8%로 급상승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새마을운동은 5대

실천운동과 5대 과제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계속 개발해서 도민의 정보화가 하루빨리 앞당겨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기획관리실장)

농촌지역의 교육이 날로 황폐해 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대도시 위주의 편협한 교육정책 탓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대안책으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모든 정책적 배려를 농촌지역 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촌지역의 교육황폐화와 관련하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도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예산배정, 대학진학문제 등 대도시 위주의 편협된 정책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배려의 농촌지역 우선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운영비의 증액배정, 복식수업의 완화, 소규모학교의 조리보조원 증원배치, 소규모학교의 사무보조원 우선배치, 특기적성 교육비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저도 교육감 취임 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젊고 유능한 교사를 농어촌에 배치하고, 농어촌 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원 연립주택도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교육감)

지난 경상북도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후보자 소견발표에서 경북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공식 선언하시면서 중앙 정부에 특별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전제하고 중앙정부와 교육부의 유대관계를 끈끈이 형성해 온 본인이 최적임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비록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학교교육 여건과 복지환경을 위해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2000년도에 우리 도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은게 245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424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말 10월말 현재 480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한 번 더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 한 600억원까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바로 노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부에 가서 떼를 쓰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감)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피해가 극심한 김천시 조마면 태풍피해 현지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개최된 「2002년 경상북도민의 날」 행사



2002 경상북도의회 의원 연수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2002 경북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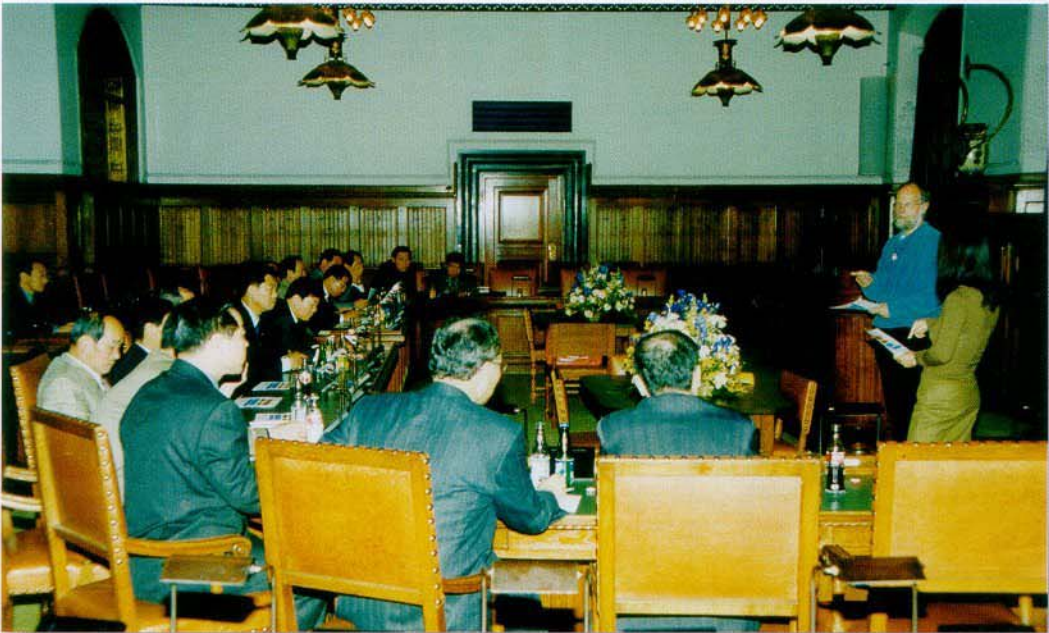
의회소식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문중유물 특별기획전」



러시아 이르크츠크주의회 친선교류방문



지방교육제도연수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프랑스 알자스주 개발청장 도의회 방문

의회소식



프랑스 알자스주 스트라스부르 국제박람회 한국 홍보관에서 알자스 주지사와 함께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안신육원

칠곡 상록모자원



의회보(제11호) 편집위원회 개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 대 진

제7대 경상북도의회의 초대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그간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대까지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 및 결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임시위원회였지만 이번 제7대에 와서 상설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산 및 결산심의에 안정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심의를 위한 지식 및 경험을 제대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성의 부족을 이번 상설화를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활동이라는 위치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것을 가장 먼저 약속드라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디지털(digital)시대 혹은 사이버(cyber)시대라고 합니다. 경제분야도 그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전자정부(e-government)의 출현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경북도정의 경제활동 즉, 예산운영이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혁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즉, 예산운영이 투명화될수록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 및 결산심의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두 번째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사상유례없는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투자, 그리고 한·칠레간 FTA협정에 따른 농어민 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및 환경대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 시설확충 등 우리 경상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북도민 누구나 질적인 삶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경상북도의회 자치발전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어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991년의 지방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의 동시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지만 착실한 지방자치의 실시과정을 통해 지방행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자치발전특별위원장
정 보 호

돌이켜보면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지난 2002년 9월 6일 제 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하여 10월 1일 발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지역을 경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재정·조직권은 여

지방자치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히 중앙정부가 결정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앙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심화정책을 추진하거나 공장총량제의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오히려 지방분권과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자주조직·인사·재정·입법권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향후 지방분권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집된 의사와 요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리적인 지방분권운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자치시스템을 우리 경북도정에 정착시키는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고자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참여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저희들은 언제든지 경청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동정



최 원 병 의장(경주)

- 2002. 9. 18 포항 호미곶에서 개최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새천년
영원의 불 합화식에 참석
- 2002. 9. 27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02산업교육 페스티벌 참석
- 2002. 9. 28 경주현대호텔에서 루마니아 하원의장 방한 만찬 및 환담
- 2002. 9. 29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 참석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한 부산AG 개막식 참석
- 2002. 9. 30 도의회 방문 프랑스 알자스주 개발청장과 환담
- 2002.10. 2 도청강당에서 개최한 2002세계일류중소기업지정서 수여식
참석
- 2002.10. 5 러시아 이르크츠크주 친선교류 방문(10.5~10.9)
- 2002.10. 14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경북장학회 이사회 참석
- 2002.10. 15 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회 경상북도여성농업
인대회 참석,축사
- 2002.10. 16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향군창설 50주년기념식
참석,축사
- 2002.10. 17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한 2002능금잔치 행사 참석
- 2002.10. 18 경주보문단지에서 개최한 제43회 도 4-H 경진대회 참석
- 2002.10. 23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한 경상북도민의날기념식 참석,축사
- 2002.10. 24 상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식 참석,축사
상주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개최식
참석,축사
- 2002.10. 24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참석
- 2002.10. 25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 2002.10. 28 구미자연환경연수원에서 열린 경북사랑,자연사랑 한마당전
진 대회 참석,축사
- 2002.11. 4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결단식
참석,격려사
- 2002.11. 9 제주크라운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 2002.11. 11 서울 농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농업인의날 중앙행사 참석
- 2002.11. 14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축사
- 2002.11. 17 경주현대호텔에서 한·일 지사 회의 일본대표단과 환담



김 선 중 부의장(안동)

- 2002. 9. 4~ 9. 9 프랑스 알자스주 스트라스부르 국제박람회 참석
- 2002. 9.30~10. 1 경상북도와 안동을 방문한 프랑스 알자스주 개발청장 방문단을 접견 환담
- 2002.10. 11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3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논의
2002 경북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0. 12 대구 우방랜드 타워전시장에서 개최된 2002 육군장병 진중창작품 전시회에 참석 작품관람과 장병들을 격려
- 2002.10. 14 안동시민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예술제에 참석 지역장애인들을 격려
- 2002.10. 15 안동시민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23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0. 16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향군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국민대화합 전진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0. 23 경상북도 도민의 날 행사 참석
- 2002.10. 24 상주시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4회 경상북도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석, 축하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0. 28 제2회 경북사랑 자연사랑 한마당 전진대회 참석
- 2002.10. 29 안동 경북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소방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축하
안동 나눔공동체에서 개최된 장애인 복지시설인 유은복지재단 설립 축하행사에 참석, 축하
- 2002.11. 4 안동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경상북도장애인합동 결혼식에 참석, 축하
- 2002.11. 5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된 문중유물특별 기획전『선비, 그들과 삶의세계』개막식에 참석
- 2002.11. 7 문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1. 11 안동소방서 회의실에서 개최된 40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하
- 2002.11.11~11.19 안동시 길안면, 남선면, 임하면, 임동면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 농민들을 격려
- 2002.11. 19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학생축제에 참석, 축하



정 무 응 부의장(울릉)

- 2002. 9. 5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 대회』에 참석, 축하
- 2002. 9. 6 경북매일 대구취재본부 개소식에 참석, 축하
- 2002. 9. 13 김천수해지역을 방문 수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작업에 참가
- 2002. 9. 27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전국청소년 응변 경북예선 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0. 2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제6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하
- 2002.10.6~20 북유럽 해외연수 참가
- 2002.10. 23 경상북도 도민의 날 행사 참석
- 2002.11. 10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경북참가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



의회운영위원회



손 규 삼 위원장(포항)

- 2002. 9. 16 사회복지시설 포항모자원 방문, 위문품 전달
- 2002. 9. 30 부산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원격지회의 출석비 제도개선 등 토의, 제14회 부산 아시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 2002.10.24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장 및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나라당 대표위원 간담회
- 2002.11.5~7 제주 개발공사, 제주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제주도 지방공사 비교 시찰 등
- 2002.11. 9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지방의회 인력보강 건의, 제83회 전국체전 개막식 참가 경북선수단 격려



방 유 봉 간사 (울진)

- 2002. 9. 9 울진군 기성면 척산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 9. 10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민주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경북 지역회의에 참석
- 2002. 9. 16 울진군 평해향교에서 개최된 대성전 석전제에 참석하고 관계자 격려
- 2002.10.13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 경북 세계농업한마당『울진의 날』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24 울진군 후포면 구산어촌계 풍어제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 격려.
- 2002.11. 5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제주개발공사 현지 비교방문
- 2002.11.13 울진군 평해읍 및 원남면 추곡수매현장 방문 농업인들을 격려



기획위원회



박 성 만 위원장(영주)

- 2002. 9. 11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회관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격려.
- 2002. 9. 14 영주시 단산면 옥대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2회 단산포도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 9. 17 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02년 품기섬유패션페스티벌 추진상황보고회에 참석.
- 2002.10. 2 영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한국 여성농업 경영인 대회에 참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특별강의를 실시.
- 2002.10.19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가흥종합복지회관 주관으로 개최된 영주시민 한마당잔치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30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23개시·도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특강
- 2002.11. 5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제주개발공사현지비교방문



장 하 숙 간사(비례)

- 2002.10.28 영주 라이온스 회관에서 장애인돕기 행사에 참석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격려
- 2002.11. 4 안동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장애인 영호남 합동결혼식에 참석 신혼부부들을 격려
- 2002.11. 5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및 제주개발공사 방문.
- 2002.11. 9 대구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경상북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 도당 부위원장에게 피선.
- 2002.11.11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하고 풍기소방파출소에서 주관한 산불조심 캠페인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석.
- 2002.11.12 풍기인삼시장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금산인삼시장을 방문.



권 경 호 의원(영양)

- 2002. 8. 28 경주 힐튼호텔에서 실시된 2002년도 의원연수회에 참석
- 2002.10.1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거행된 2002 경북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1.14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주도 서귀포 칼 호텔에서 실시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워크샵에 참석
- 2002.11.18 영양군 입암면,석보면 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및 농업인들과 환담.



박 경 동 의원(울릉)

- 2002. 8. 28 경주 힐튼호텔에서 실시된 2002년도 의원연수회에 참석
- 2002. 9. 29 부산 아시아드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 2002.10.1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거행된 2002 경북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1. 5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제주개발공사 현지 비교방문



박 두 필 의원(비례)

- 2002.10.1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거행된 2002 경북세계 농업한마당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25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 2002.10.28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경북사랑운동본부 회장으로 서 제2회 경북사랑,자연사랑 한마당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사를 함.
- 2002.11. 5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제주개발 공사 현지 비교방문



행정사회위원회



김 희 문 위원장(봉화)

- 2002. 9. 26 봉화군수기타기 축구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0. 5 봉화군수기 불링대회에 참석, 축하
- 2002.10.15 세계농업인한마당축제 봉화의 날 행사에 참석, 격려
- 2002.10.16 봉화 군민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격려
- 2002.11. 1 봉화 군민회관에서 열린 2002년도 여성사업평가회에 참석, 격려
- 2002.11. 5 봉화읍 삼계리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 격려
- 2002.11.10 생활체육협회장기 풋살대회에 참석, 대회사
- 2002.11.23 봉화군청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동천시 방문단 환영식에 참석
- 2002.12.10 봉화JC회장단 이 취임식에 참석, 축하



이 현 준 간사(예천)

- 2002. 9. 8 제16회 예천군 불림협회장에서 군민불림대회에 참석, 선수단 격려
- 2002. 9. 9 예천온천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
- 2002. 9. 17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주자로 참가
- 2002.10. 2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격려
- 2002.10.14 (사)한국농업경영인 예천군 연합회가 주최한 추수 감사제에 참석
- 2002.10.25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 2002.10.30 용문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석
- 2002.11. 3 예천군 테니스협회장기 타기 테니스대회에 참석, 격려
- 2002.11. 9 예천군 「소방가족 체육대회」에 참석, 대원 및 선수단 격려



김 정 자 의원(비례)

- 2002. 9. 1 근남면 일원 호우피해지역 현지확인
- 2002. 9. 2 울진군청에서 열린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석, 격려사
- 2002. 9.7~8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 전야제 및 개회식에 참석
- 2002. 9. 14 서울 이화여고 육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사랑을 나누는 세상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에 참석
- 2002.10.14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시상
- 2002.10.19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성류문화에 참석
- 2002.10.24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울진군 여성대회에 참석, 격려사
- 2002.10.26 울진군청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재단설립(신우)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
- 2002.11.10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0회 울진군민 건강걷기 대회에 참석, 시상
- 2002.11.15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02년도 푸른음악회에 참석
- 2002.11.19 울진 평해, 서면, 근남면 등의 추곡수매현장을 방문, 관계자 격려



나 중 택 의원(고령)

- 2002.10. 4 대가야국악당에서 열린 우륵가야금 경연대회에 참석, 격려
- 2002.10.22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
- 2002.10.25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 2002.11. 4 개진면 테니스장 개장식에 참석, 축하
- 2002.11.12 성산면사무소에서 열린 국화축제에 참석, 축하
- 2002.11.12~19 고령개진, 육고, 성산, 다산 추곡수매현장을 방문, 관계자 격려 및 농정시책 의견수립
- 2002.11.18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북지부 결의대회및 후원회에 참석



손 만 택 의원(군위)

- 2002. 9. 4 군위읍 금구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감사장 수상 및 축하
- 2002. 9. 4 군위군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축하
- 2002. 9. 7 경북JC특우회 우정의날 행사에 참석, 지구회장 감사패 수상
- 2002. 9. 9 군위읍 무성3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감사장 수상
- 2002. 9.12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
- 2002. 9.12 군위군 소보면 노인대학에서 특강
- 2002. 9.12 군위군 군위읍 노인대학에서 특강
- 2002.10.12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감사장 수상 및 축하
- 2002.10.16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50주년기념행사에 참석, 공로회장증 수상
- 2002.10.25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 2002.10.26 전국 적십자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
- 2002.11.11 군위소방파출소에서 열린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



황복희 의원(비례)

- 2002. 9. 3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시새마을수련대회에 참석, 축하
- 2002. 9. 5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한 김천수해지구 위문행사에 참가
- 2002. 9. 18 포항 해맞이공원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합화식에 참석
- 2002. 10. 2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
- 2002. 10. 11 경주세계농업인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
- 2002. 10. 16 포항시 여성단체 수련대회에 참석, 축하
- 2002. 10. 21 포항시여성협의회 주관 포항시 영세노인 칠순잔치에 참석, 축하



교육환경위원회



김순권 간사(포항)

- 2002. 9.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수여



권준택 의원(칠곡)

- 2002. 8. 17 김천수해지역 방문, 일손돕기 및 위문품전달
- 2002. 9. 28 칠곡 순심중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제41회 칠곡군민체육대회 참석
- 2002. 10. 4 칠곡 왜관테니스장에서 개최한 구상문학관 개관식 참석
- 2002. 11. 2 구 칠곡농촌지도소에서 개최한 범국민 통일기원 단축마라톤대회 참석
- 2002. 11. 14 칠곡군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2002여성한마음 축제 참석



김 응 규 의원(김천)

- 2002. 9.1~ 7 '루사'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역 방문
- 2002.10. 15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식 참석, 격려 (문화예술회관)
- 2002.10.16 전국 가족연극제 참석 관계자 격려 (문화예술회관)
- 2002.11. 5 아랫장터 중고장터 개소식 참석 및 市場 방문 (용암동)
- 2002.11.16~19 임인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 주민과의 대화 (개령·부항면)



박 승 학 의원(청송)

- 2002.10. 15 청송 진성중학교에서 열린 군수배축구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박 종 욱 의원(청송)

- 2002. 9. 12 청송군 파천면 수해현장 방문, 피해주민 및 관계공무원 격려
- 2002.10.22 청송군 진보면에서 열린 민방위교육에 참석, 민방위대원들과 환담
- 2002.11.18 사무실 이전개소식(청송 진보면)



농수산위원회



방 대 선 위원장(성주)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 9. 30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축사
- 2002.10. 1 상주지역 우박피해 현지확인 및 주민 격려



정 상 진 간사(예천)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 1 상주지역 우박피해 현지확인 및 주민 격려
- 2002.10. 11 경북세계농업한마당행사 및 경북 국제농업NGO대회 개막식 참석



강 영 서 의원(봉화)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 1 상주지역 우박피해 현지확인 및 주민 격려



김 정 기 의원(김천)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김 주 연 의원(칠곡)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11 경북세계농업한마당행사 및 경북 국제농업NGO대회 개막식 참석



양 재 경 의원(청도)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 1 상주지역 우박피해 현지확인 및 주민 격려



이 상 효 의원(경주)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 1 경주시 성동동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사무실 개소
- 2002.11. 2 경북패션페스티벌 개막식 및 리셉션 참가 관계자 격려



이 용 석 의원(구미)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 1 상주지역 우박피해 현지확인 및 주민 격려



이 정 백 의원(상주)

- 2002. 9. 13 김천지역 태풍"루사"피해지역 현지확인 및 집행부 공무원과 복구지원, 관계자 격려
- 2002.10. 1 상주지역 우박피해 현지확인 및 주민 격려
- 2002.10.11 경북세계농업한마당행사 및 경북 국제농업NGO대회 개막식 참석
- 2002.10.15 경주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 제1회 도 여성농업인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16 경주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 전국 새농민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17 경주보문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제43회 도 4-H경진대회 및 축제 한마당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18 상주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119소방안전체험교실을 방문, 관계자 격려
- 2002.11.17 상주시 이안면 일대 농산 농가 방문, 여론수렴



산업관광위원회



김 석 호 간사(구미)

- 2002. 9. 28 제4회 경북 수화경연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 2 제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2002.10.21 제57주년 경찰의 날 행사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25 2002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 2002.10.26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
- 2002.11. 3 제86회 경북 남녀친선 궁도대회 참석
- 2002.11.11~12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방문, 격려
- 2002.11.14 고 박정희 대통령 85주년 탄신기념행사 참석



김 병 진 의원(문경)

- 2002. 9. 22 문경온천지구광장에서 개최한 제 14회 문경새재주흘 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10 문경도자기전시회에서 열린 제4회 문경전통차사발 축제와 제3회 문경시수석전시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23 문경시 장애인후원회장으로서 기금 2천만원을 장애인 협회에 기증하고 장애인을 위로, 격려
- 2002.10.30 일일문경우체국장으로 위촉받고 업무보고청취 및 모 전동과 신흥동 우체국을 방문, 관계자 격려
- 2002.11. 1 문경소방서 앞 국도에서 개최된 제16회 서봉기타기 초·중·고 대한 구간 경주대회 및 제2회 읍·면·동 단축 마라톤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1.17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협회장기 배구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정 일 영 의원(울진)

- 2002. 9. 4 울진행정동우회 주관 자연보호캠페인 참석,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참석 관계관 격려
- 2002. 9. 7 울진군 수해지역 방문, 수해주민 위로 및 관계관 격려
- 2002. 9. 8 울진군 북면체육대회 참석 관계관 격려
- 2002. 9. 9 울진군 민속장기대회 참석 관계관 격려



한 혜 련 의원(비례)

- 2002. 9.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상북도 지역회의 참석
- 2002. 9. 27 제35회 경상북도교육감기 타기 태권도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 2 2002년도 세계일류중소기업지정서 수여식 참석
- 2002.10.10 2002년도 전국민방위시범훈련행사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29 환경보존을 위한 여성지도자 의식교육 실시
- 2002.10.30 영천시 무의탁 독거노인 사랑의 경노잔치 개최 및 대회사
- 2002.11.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대표위원 연찬회 참석
- 2002.11.9~15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83회 전국체전 참석, 경북선수단 격려



건설소방위원회



이 달 위원장(경주)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0.19 소방가족 체육대회 참석 및 격려
- 2002.10.30 북한 경제사절단 초청 만찬 참석
- 2002.11. 9 소방의날 경주소방서 기념행사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9 경주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황 상 조 간사(경산)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1. 9 소방의날 경산소방서 기념행사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9 경산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김기대 의원(성주)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 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1. 9 소방의날 성주소방서 기념행사 참석, 축하 및 격려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9 성주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박영화 의원(고령)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 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9 고령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윤경희 의원(비례)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 5 청송읍 금곡리 태풍피해지역에 인력 및 장비지원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 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9 청송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이종철 의원(영천)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 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1. 9 소방의날 영천소방서 기념행사 참석 축하 및 격려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2 영천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이 호 근 의원(영양)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 9. 12 영양군청에서 열린 향우회 간담회 참석, 특산물 홍보 부탁
- 2002.10.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0.28 영양유사무소방문 수해 농가 지원과 복구사업 동참당부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9 영양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장 욱 의원(군위)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1. 9 10:00 소방의날 경주소방서 행사 참석 축하 및 격려
- 2002.11.5~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1~12 현재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채 희 영 의원(문경)

- 2002. 9. 2 김천 수해현장 방문
- 2002. 9.9~12 성주,청송,영양,울진,영덕 수해현장 방문
- 2002.10.11 세계농업한마당 개막식 참석
- 2002.10.26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0.29 문경시청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정구 금메달수상 선수 환영식 참석, 격려
- 2002.11. 1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한 서봉기 단축마라톤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1.5~7 제주국제자유도시 방문
- 2002.11. 8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중부권광역개발계획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
- 2002.11. 9 소방의날 문경소방서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1.1~19 문경지역 추곡수매현장 방문 격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 대 진 위원장(안동)

- 2002. 9. 29 아리랑팝스 오케스트라단(단장 장대진의원)은 안동탈춤축제에 참석 공연회를 개최
- 2002.10.15 안동농업인 연합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 2002.10.16~18 도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예결특위가 상설·운영됨에 따라 타 시·도의회 특위 운영상황과 예결산 심사기법 및 우수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결위원들과 2박 3일간 전남 및 전북 도의회를 방문
- 2002.10.24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논의
- 2002.11.6~7 2003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들과 경산, 경주, 구미, 의성등 도내 건설공사현장 및 대규모 도비 보조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상황청취및관계자들을 격려
- 2002.11.11 안동소방서에서 열개최한 " 제40주년 소방의날 행사" 기념식에 참석, 소방공무원 격려
- 2002.11.13~19 안동지역 추곡수매현장을 방문하여 농정시책 의견수렴 및 농민들을 격려.



우 성 호 간사(영주)

- 2002. 9. 14 경북전문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영주사장배 바둑 대회에 참석, 격려
- 2002. 9.14~15 단산면 옥대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회 단산포도 축제에 참석, 격려
- 2002. 9.27~ 계속 풍기읍 산법리, 조와동 갯골, 안정면 봉암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축사
- 2002.10. 2 풍기인삼 축제장에서 열린 2002년도 풍기인삼축제에 참석, 격려
- 2002.10. 5 동양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풍기섬유패션 페스티벌에 참석, 격려
- 2002.10. 19 세계농업인한마당축제 영주시의 날 행사에 참석, 격려
- 2002.10. 24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참석, 격려
- 2002.10. 25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 2002.10. 27 서울 아세아공원에서 열린 재경영주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격려
- 2002.11. 2 부석농협공판장에서 열린 부석사과 축제에 참석, 격려
- 2002.11. 5 적서동에서 열린 영주천연가스기지 준공식에 참석, 격려
- 2002.11. 8 시청 강당에서 열린 중부내륙광역권 계획수립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
- 2002.11. 14 순흥면 태장리에서 열린 경륜훈련원 개원식 및 입소식에 참석



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정 보 호 위원장(구미)

- 2002. 8. 21 구미시청에서 개최한 시정협의회 참석
- 2002.10. 2 금오산에서 개최한 경북자연보호협의회 주최 자연보호 백일장 참석
- 2002.10. 25 고 박정희대통령 체육관에서 개최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 2002.10. 26 고 박정희대통령 서거 추모행사 참석 (생가)
- 2002.11. 18 도리사 아도성사 동상제막식 참석